



연구개발비 원상회복!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말살 정책 분쇄!



# 과기연구주간소식

31호  
2025. 1.13.(월)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http://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mailto:mail@kupst.org)

## 과학기술본부 2025년 첫 대표자회의 개최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이창재 본부장)는 지난 1월 9일(목),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에서 2025년 새해 첫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임금교섭 현황을 포함한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 현안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회 면담 결과 중 우리 노동조합의 지속적 요구로 폐지된 출연(연) 고용계약제 관련 기관별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논의 안건을 다루기 전에 과학기술본부 신임 본부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대표자의 추천과 논의를 통해 이창재 본부장을 재신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과학기술본부 2024년 사업평가가 이루어졌다. 대표자들은 과학기술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한 사업평가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두 번째 논의 안건으로 2025년 과학기술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대표자들은 논의를 통해 상정된 사업계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가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된 과학기술본부 2024년 사업평가와 2025년 사업 계획은 오는 14일(화) 중앙위원회를 통해 2025년 정기대의원대회(1월 21일, 화)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본부 차기 대표자회의는 2월 13일(목)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부산 창의과학캠프" 성료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과학 꿈나무 육성 및 학부모 교육 기회 제공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 1월 11일(토) 부산 영도구 해양로에 위치한 해양물류산업센터에서 '부산 창의과학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조합원 자녀를 비롯해 부산 지역 초중등 학생 40여 명과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노동조합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공계 진로 설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서성원 교육선전위원장(KAIST 전문위원)은 밝혔다.

### 다채로운 학부모 특강 및 학생 대상 융합과학 프로젝트 진행

캠프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마련되었다. 장영배 교육선전위원(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노동조합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서성원 교육선전위원장은 영재의 특성과 영재 교육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또한 서영선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 학교정책과)은 기초 학력과 문해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수준별 융합과학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은 '하늘을 나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항공 역학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학생들은 '착 붙는 전기회로'라는 주제로 큐브 형태의 전기회로를 직접 만들고 실험하는 탐구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키웠다.

###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육 모델 제시 및 지속적인 운영 계획

이번 '부산 창의과학캠프'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합원들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적 태도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캠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를 지원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캠프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항공 사고 참사 현장 방문 참배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한수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호남권본부 소속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 간부들은 지난 1월 9일 목요일 제주항공 사고 참사 현장을 찾았다.

먼저 무안 공항 실내 분향소를 찾아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참배 했으며, 이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둘러본 뒤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최연택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항공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 [과학기술정책 이슈] 노동자가 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하는가? ①

**“연구개발에 노동조합의 시각을 포함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공평한 기술과 공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저널 『과학기술이슈』 2024년 가을호에 실린 글을 번역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두 번으로 나누어 노조 주간소식에 게재한다. 이 글의 출처와 저자 소개는 아래를 참조.

<출처> Amanda Ballantyne, Jodi Forlizzi, and Crystal Weise, “A Vision for Centering Workers in Technology Development”,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all 2024, pp. 95~99

[https://issues.org/union-workers-tech-development-ballantyne-forlizzi-weise/?utm\\_source=issues.org&utm\\_campaign=f7b87a4165-EMAIL\\_CAMPAIGN\\_2019\\_04\\_12\\_02\\_16\\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741884f373-f7b87a4165-438942246&mc\\_cid=f7b87a4165&mc\\_eid=611411e0f2](https://issues.org/union-workers-tech-development-ballantyne-forlizzi-weise/?utm_source=issues.org&utm_campaign=f7b87a4165-EMAIL_CAMPAIGN_2019_04_12_02_16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741884f373-f7b87a4165-438942246&mc_cid=f7b87a4165&mc_eid=611411e0f2)

<저자>

- 아만다 밸런타인: 미국노총(AFL-CIO) 기술연구실장, 미국노총 위원장 전략자문관
- 조디 포르리지: 미국노총 기술연구실 고위자문관, 카네기멜론대학 컴퓨터 과학대 ‘다양성·공평·포용’ 부학장
- 크리스탈 위스: 미국노총 기술연구실 혁신정책자문관

<번역과 요약 정리> 장영배 교육선전위원

### 들어가며

미디어와 일터에서 인공지능은 널리 선전되고 있다. 특히 오픈AI가 2022년 11월에 챗GPT를 출시한 이후 더욱 그렇다. 일터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노동자의 채용, 징계, 해고, 그리고 업무 배분과 일정짜기,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자동화와 로봇공학의 기존 추세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019년 데이터를 2023년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노동자의 30%, 제조업 노동자의 50% 이상이 임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노출은 광범위한 불안감을 초래하였다. 1,2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70%의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선택은 기술이 일터나 여타의 사회제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한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로봇공학, 일터의 자동화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불평등을 악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격차와 불공평을 확대할 수 있다. 기술혁신은 공공연구개발 생태계의 인센티브와 정책선택에 의해서 형성된다. 노동자는 기술이 일터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선택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공공연구개발시스템은 중요한 전문가이며 최종 이용자 집단인 노동자를 지금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혁신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평등을 확대하며 경제적 격차를 늘리고 기술의 발전과 수용을 방해할 수 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혁신적 기술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여 혁신적 기술의 완전한 혜택이 사회 전체를 위하여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더구나, 노동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이바지하는 납세자이기도 하다.

공적 자금지원에 의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연구개발은 노동자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 중심적 연구개발, 즉, 노조를 통하여 노동자의 필요와 경험에 관하여 노동자들과 협의하는 방식은 기술의 설계, 개발, 적용과 활용에서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잘 아는 전문가이며, 노동자의 시각은 효율성과 공정성에서 안전과 노동자 복지에 이르는 많은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여러 산업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적절한 규모로 실행된다면, 이러한 전략은 기술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게 하고 혁신의 피해를 뛰어넘게 하는 수단이다.

### 노동자의 필요를 고려하기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은 혁신생태계에 필수적이다. 비(非)국방 인공지능 연구개발비 17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2,000억 달러(추정치)에 이르는 이러한 자금지원은 보조금, 융자, 정부계약, 포닥연구장학금,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세금을 납부하여 이 시스템을 재정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자금 지원하는 연구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다. 혁신의 과정과 성과의 초점을 혁신에 자금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자동화의 무분별한 실행이 일자리를 없애고 직업을 탈숙련화한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병원들은 원격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숙련 간호사를 숙련도가 떨어지는 간호사로 대체하였다. 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기술을 실행하는 것은 자율성과 직업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16년에 걸쳐 15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 로봇을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로봇에 대하여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로봇 운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보다 자신의 직무에서 더 큰 역량과 활동성을 가지며 동료 노동자들과도 더 큰 사회적 관계를 느낀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일터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을 악화시키며 노동자의 권한을 빼앗고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훼손하며 경제적 인종적 불평등을 악화하고 심지어 일반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잘못된 자유무역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적절한 정책적 보호 조치가 없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상당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와 혁신이 노동자나 노동자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사회의 극소수 집단에게 혜택을 몰아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급진적 변화와 전환에 포용적으로 대처하며 혜택을 더 널리 공유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변화가 하나의 산업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통신 산업은 아주 적절한 사례이다. 1940년대에 전화 교환원은 전화요금청구서를 손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기업들은 펀치카드를 이용한 자동요금 청구서를 도입하였을 때 전화 교환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전기통신산업은 새로운 기술(초기 컴퓨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훈련시켰으며, 노동자들은 일터의 기술변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연구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급진적 기술변화와 전환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초기 전력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전력인프라를 상당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제전기노조(IBEW)는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에서 전력화 정책과 표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추후 주간소식에 '노동자가 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하는가? ②'가 계속됩니다.)



## 행사와 집회



부산 창의과학캠프 (1. 11.)



제주항공 참사 참배\_무안공항(1. 9.)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 주요 언론 보도

['새 기관장 언제쯤?..'대덕특구 기관들 '울상' - TJB 대전](#)

## 주요일정

1월 13일	14:00 2024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1월 14일	13:30 2025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교육)
1월 15일	15:00 대구TP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1월 16일	11:00 한국식품연구원지부 비대위원장 면담 14:00 테크노파크본부 월례회의(~ 17일)



KUPST.org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